

마키아벨리의 포르투나관 연구:

『군주론』을 중심으로*

김경희 | 성신여자대학교

본 논문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Il Principe*)에 나타난 포르투나(*fortuna*) 개념을 살펴보고자 하는 글이다. 포르투나는 운명이나 행운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신의 전일적 지배라는 중세를 넘어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관철된다고 보는 르네상스기를 살았다. 신이 지배하며 매사에 임재하지도 그렇다고 인간이 주도권을 지닌 시기도 아니었다. 그 어디 중간에 위치한 이행기였던 것이다. 이런 시기 마키아벨리는 국가의 지도자를 위한 책으로 『군주론』을 저술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권력을 과신하여 오만한 폭군이 되려는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에 겸손하고 자신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지도자의 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군주론』의 제대로 된 의도와 의미를 깨달도록 도와주는 것이 역량 즉 비르투 개념이 아닌 바로 포르투나의 개념인 것이다.

주제어: 마키아벨리, 군주론, 포르투나, 비르투, 군주

I. 서론

본 논문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Il Principe*)에 나타난 포르투나(*fortuna*) 개념을 살펴보고자 하는 글이다. 포르투나는 운명이나 행운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 같은 인간적인 영역의 바깥에 존재하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힘등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전환과 혼란의 시기였던 르네상스기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포르투나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예측불가능한 세계를 표현하는 핵심 단어였다. 마키아벨리는 신의 전일적 지배라는 중세를 넘어 인간의 자유의

*이 논문은 2015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가 어느 정도 관철된다고 보는 르네상스기를 살았다. 신이 지배하며 매사를 주재 하지도 그렇다고 인간이 주도권을 지닌 시기도 아니었다. 그 어디 중간에 위치한 이행기였던 것이다. 이런 시기 마키아벨리는 국가의 지도자를 위한 책으로 『군주론』을 저술했다.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강조한 지침서로 해석되었기에 인간의 역량 즉 비르투(virtù)를 중심에 놓고 보아왔다.¹⁾ 하지만 그 리더십을 발휘할 인간 특히 지도자는 그리 강한 존재가 아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포르투나의 눈치를 보고 운 좋게 성공하면 그것을 누리기도 전에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불운에 조심해야 하는 존재이다. 결국 마키아벨리는 포르투나를 통해 성공적인 지도자의 자세를 설파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영웅적인 지도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아집과 오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능력 있는 자는 언제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권력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려 할 수 있다.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르투나의 개념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권력을 과신하여 오만한 폭군이 되려는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에 겸손하고 자신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지도자의 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군주론』의 제대로 된 의도와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역량 즉 비르투 개념이 아닌 바로 포르투나의 개념인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군주론』의 핵심 주장을 인간의 능력과 운명 간의 관계로 해석해 왔다. 특히 운명을 이기는 뛰어난 인물과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춰왔다. 운명에 맞설 수 있는 역량 있는 지도자만이 군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모술수나 무력 등은 바로 이러한 군주들이 사용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비르투 혹은 역량개념을 중심으로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살펴본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²⁾ 하지만 본 연구는 포르투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비르투에 초점을

1) 비르투는 역량, 능력 혹은 덕으로 번역될 수 있는 개념이다. 고대 로마의 *virtus* 개념을 이어받은 것이다. 마키아벨리에게는 도덕적인 덕 개념보다는 역량 혹은 능력 개념으로 더 자주 사용된다. 비르투 개념에 대한 연구들은 각주 2참조.

2) 비르투 개념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들[기어켄(Geerken 1970), 길버트(Gilbert 1951), 한나포드(Hannaford 1972), 칸(Kahn 1986), 뮌클러(Münkler 1994), 네더만(Nederman 2000), 포콕(Pocock 1975), 프라이스(Price 1973), 휘트필드(Whitfield 1943), 우드(Wood 1967), 박상섭(1998), 갈상돈(2011), 김경희(2014) 등] 참조. 한편 상대적으로 적은 포르투나에 대한 연구[치오파리(Cioffarri 1947), 플라나겐(Flanagan 1972), 네더만(Nederman 1999; 2000), 탈튼(Tarilton 1968; 1999), 박의경(2016) 등]은 비르투 우위에 대한 관심과

맞추면 군주 개인의 능력이 과대포장될 위험이 있다. 세상을 자유자재로 구조할 수 있는 영웅적 인물이 탄생되는 것이다.³⁾ 하지만 그것은 『군주론』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게 된다. 포르투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인간의 역량은 그 앞에서 뚜렷한 한계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완전히 파악할 수도 없고 온전히 대처할 수도 없는 힘을 가진 것이 포르투나이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의 포르투나 개념에 대한 연구들은 인간의 역량을 통한 포르투나의 제어가능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⁴⁾ 하나는 제어불가능성을 강조한다. 이 연구들은 포르투나를 신의 섭리나 운명 등을 대체하는 용어로 파악하여 인간의 의지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지언정 제어가능 한 것은 아니다.⁵⁾ 다른 하나는 제어가능성을 주장한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것에 기반 한 행동을 통해 포르투나가 제어가능하다는 것이다.⁶⁾ 물론 이 연구들도 포르투나가 인간의 의지여하에 의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는 외재적인 존재이지만 인간의 능력 여하에 따라 그것이 제어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분석을 수행한 이가 피트킨(Pitkin)이다. 그녀는 포르투나에 대한 저술에서 기존의 수레바퀴에 대한 비유에 여러 수레바퀴를 통한 성공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마키아벨리의 기여였다고 말한다(Pitkin 1984, 146). 회전운동을 하는 여러 개의 수레바퀴 중에 상승운동을 하는 올바른 수레바퀴를 골라 타면 그것이 성공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수레바퀴는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회전운동을 할 뿐이지만 여러 개의 수레바퀴 중 매 시기마다 적당한 것을 고를 수 있다면 성공의 가능성이 계속 열려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군주론』의 포르투나를 살펴보려 한다. 포르투나의 발생 혹은 생성은 인간의 의지 밖에서 작동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기존 논의들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하지만 포르투나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

해석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 실제로 국민국가 형성이 늦었던 독일의 경우, 『군주론』의 해석 경향에서 군주 역량의 영웅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마이네케(Meinecke 1990) 등 참조.
- 4) 발라반(Balaban 1990), 24쪽 이하 참조.
- 5) 스트라우스와 카시러가 이러한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Strauss 1969; Cassirer 1946). 발라반(Balaban 1990, 25-26)과 플라나겐(Flanagan 1972, 150-151) 참조.
- 6) 탈튼(Tarltton 1968) 참조.

해서는 인간이 어느 정도 대처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포르투나는 제어가능하지도 또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 외의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키아벨리는 손을 놓고 있으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댐과 둑이라는 제도를 쌓아야 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영역과 집단 혹은 제도의 차원을 구분해서 대응해야 하는데, 전자는 그 행동양식의 비유연성으로 인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후자는 개인보다는 강한 힘을 가지고 포르투나에 대처 가능하다. 군주 개인과 제도의 차원을 나누어 살펴볼 때 마키아벨리가 군주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지도자 개인은 미약하기 때문에 포르투나라는 강적에 맞서기 위해서는 군대와 인민의 지지 같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힘을 공적으로 구성해 내야 하는 것이다. 포르투나는 자칫 비르투만을 강조함으로써 오만과 독선에 빠지기 쉬운 지도자를 겸손과 겸양 나아가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존과 공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핵심 개념인 것이다.

II. 『군주론』의 포르투나

포르투나는 고대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는 개념이었다. 또한 중세의 포르투나는 신의 섭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것은 신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서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었다(Pitkin, 1984; Reichert, 1985; Münkler 2016). 중세를 넘어서면서 포르투나는 우연의 힘으로 작동한다. 신이 인간 세계라는 무대의 장막 뒤로 숨으면서 포르투나는 필연으로 설명될 수 없는 우연을 설명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이러한 포르투나를 잘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상징이 사용되었는데 크게 보아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변덕스런 여성, 두 번째는 급류의 강이거나 험난한 풍파와 파도가 치는 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둥그런 수레바퀴 등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측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인간 삶의 급변성을, 세 번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인간의 운명을 지시한다. 생로병사나 행운과 불운의 주기적인 도래 등은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변천하는 운명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흐름을 표현하는 것이기

도 하다. 넓게는 인간운명의 변천성을, 좁게는 인간사의 예측불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포르투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포르투나에 인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 이것을 뮌클러(Münkler)는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주로 개인의 영역으로 침잠하는 것으로 문명과 인간의 영역인 도시가 아니라 자연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상업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은행가나 상인의 대처방식으로 개연성 있는 위협에 보험처럼 계산의 힘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식은 강권으로 개입하는 것인데, 정치나 공적 영역에서 제도를 만들고 그것으로 대처하는 것이다(Münkler 2016). 첫 번째는 스토아나 네오 스토아주의자들의 방식이다. 포르투나와의 직접적인 대면보다는 외면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⁷⁾ 이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선견지명의 지혜나 제도를 통한 적극적 대처를 강조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선 『군주론』에 나타나는 포르투나의 용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의의를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1. 예측불가능성과 운명의 변천으로서의 포르투나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작들에서 르네상스까지 이어지는 포르투나의 상징들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인간사의 길흉화복에 개입하는 변덕스러운 여신, 험난한 파도나 홍수, 수레바퀴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Machiavelli 1965a; Machiavelli 1965b; Machiavelli 1988; Machiavelli 2003; Machiavelli 2008). 포르투나가 총 53회 정도 등장하는 『군주론』에서도 이 모든 비유를 다 사용하고 있다. 인간사에 개입하는 여신의 비유는 25장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 그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운명은 인간사에 얼마나 많은 힘을 행사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운명에 대처해야 하는가(Quantum Fortuna in rebus humanis possit, et quomodo illi sit occurrendum).” 아울러 25장을 시작하는 첫줄에서 인간사를 주재하는 운명의 여신을 언급하고 있다: “저는 본래 세상일이란 운명(Fortuna)과 신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신중함으로써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7) 피트킨도 후선으로 물러나는 스토아적 대안이나 행동주의(activism) 같은 비슷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Pitkin 1984, 143-145).

생각해 왔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Machiavelli 2008, 162).” 이어서 마키아벨리는 운명의 지배력에 대한 믿음이 당시 더욱 맹위를 떨치는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는 대격변” 때문에 여전히 팽배해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그는 곧 인간의 자유의지를 위해 “운명이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반만 주재할 뿐이며 대략 나머지 반은 우리의 통제에 맡겨져” 있다고 주장한다(Machiavelli 2008, 162-163). 그런데 이러한 인간사를 좌지우지하는 운명에 대한 표현은 이미 20장에서도 등장한다. 자신이 선호하는 신생 군주의 권력을 증대시키길 원할 때 강력한 적을 마련하여 그 힘을 배가시켜 준다는 것이다. 흔히 강한 적의 등장은 위기로 파악되지만 운명의 여신은 반대로 적의 힘을 강화하여 신생군주가 그들과 싸우면서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는 것이다. 결국 이 적은 신생군주에게는 위협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사다리”와 같은 것이고 그러한 좋은 결과를 위해 포르투나가 미리 배려해 놓는다는 것이다(Machiavelli 2008, 142).

『군주론』 24장과 25장에서는 포르투나에 대한 자연현상의 비유가 나온다. 폭풍과 험난한 강에 대한 비유가 바로 그것이다. 24장에서 국가를 잃은 군주들은 운명이 아닌 그들의 무능력을 탓해야 하는데, 이는 평화기에 사태가 변할 수 있음을 알고 그것에 대비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날씨가 좋을 때 폭풍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Machiavelli 2008, 160-161). 25장에 나오는 험난한 강으로서 포르투나는 “노하면 평야를 덮치고 나무나 집을 파괴하며, 이쪽 땅을 들어 저쪽으로 옮겨 놓기도”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그 격류 앞에서는 도망가며, 어떤 방법으로도 제지하지 못하며 굴복하고 만다.”라고 적고 있다(Machiavelli 2008, 163).

수레바퀴에 대한 비유는 『군주론』에서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둥근 수레바퀴가 굴러감에 따라 바퀴의 아래 즉 나락에서 바퀴의 위쪽인 정상에까지 다다르고, 다시 바퀴의 움직임에 따라 정상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순환과 부침의 과정에 대한 언급은 『군주론』에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7장에 나타난 체자레 보르자(Cesare Borgia)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교황이었던 아버지 알렉산더(Alexander) 6세에 의해 젊어서 교황군의 수장이 되고 여러 가지 명성과 권력을 얻게 된 것은 그가 잘 태어난 행운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알렉산더 6세가 죽고, 자신마저 예측지도 못했던 병에 걸려 누워있게 되자 자신의 권력을 잃게 된다. 젊어서의 벼락출세와 불가항력에 의한 실패는 포르투나에 의한 상승

과 몰락의 과정을 겪은 것이다.⁸⁾ 이러한 개인의 운명에 관한 순환론은 한 국가의 운명에 관한 순환론으로 25장에서도 드러난다.⁹⁾ 25장 첫 부분에서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에 훌륭한 군주가 나타날 상황이 무르익었음을 주장한다. 그 근거는 이탈리아가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나락의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모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속박되었어야 했고, 테세우스가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테네가 나락에 위치해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탈리아는 현재 “절망적인 상황” 나아가 이스라엘인이나 아테네인들보다 더 “황폐한 상황”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정점을 찍고 상승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이다(Machiavelli 2008, 168-169).

그런데 25장에서 자신들의 동족이나 국가를 구해낸 뛰어난 인물들로 등장하는 모세, 테세우스, 키로스 등은 앞의 6장에서 먼저 등장한다. 역사상 뛰어난 능력으로 지도자가 된 인물들인 모세(Moses), 키로스(Chirus), 로물루스(Romulus), 테세우스(Theseus)가 그들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들이 이룩한 뛰어난 업적은 전적으로 그들의 능력에 의존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난다. 바로 역량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와 그 기회가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의 관계 때문이다. 역량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소용이 없다. 그렇지만 기회가 오지 않으면 역량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포르투나인 것이다.

그들의 행적과 생애를 검토해보면, 질료를 자신들이 생각한 최선의 형태로 빚어낼

-
- 8) 발렌티노 공작으로 불린 체자레 보르자는 아버지 알렉산더 6세의 도움으로 공작의 지위에 올랐지만 원군(援軍)과 용병 대신 자기 군대를 만들고, 인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 여러 노력과 자신의 뛰어난 재능으로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실패하고 마는데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그의 실패는 전적으로 예외적이고 악의적인 운명(*una extraordinaria e estrema malignità di fortuna*)의 일격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를 나무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Machiavelli 2008, 49).” 또한 『군주론』 8장에서 등장하는 올리베로토(Oliverotto)도 비슷한 운명의 순환을 보여준다. 그는 외삼촌 등을 죽인 악행으로 군주의 자리에 오르지만 1년 만에 자신이 했던 것과 같은, 체자레 보르자의 권모술수에 넘어가 죽임을 당한다.
- 9) 국가의 순환론에 대한 언급은 『군주론』 13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로마제국이 고트족을 용병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힘은 쇠락했고, 로마 제국의 모든 활력이 고트족으로 흡수되었다고 적고 있다(Machiavelli 2008, 98).

기회(occasione)를 가진 것 이외에는 그들이 행운(fortuna)에 의존한 바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더라면, 그들의 위대한 정신력은 탕진되어버렸을 것이고, 그들에게 역량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기회는 무산되어버렸을 것입니다(Machiavelli 2008, 42-43).

역량을 아무리 갖고 닦아봤자 포르투나가 심술을 부려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 공부와 훈련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증진시켜 놓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기회를 알아보는 능력과 시간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다. 예측불가능성과 성공과 실패의 순환적인 운명을 가져오는 포르투나가 인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간의 흐름이다.¹⁰⁾ 『군주론』 3장에서 마키아벨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태의 변화에 대해 소모성 열병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모든 병이 그렇듯 이 병은 초기에는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치료하기는 쉬우나 진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단은 쉬워도 치료하기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그에 알맞은 조치가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일과도 연결되는데, 문제를 일찍 인식하면 신속히 해결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사태가 악화되고 속수무책이 된다는 것이다(Machiavelli 2008, 25). 이는 당시 피렌체 지배귀족들이 시기적절한 대응을 못한 채 “시간을 끌면서 이익을 취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을 비판하는데서 잘 드러난다. 결국 “시간은 모든 것을 몰고 오며, 해악은 물론 이익을, 이익은 물론 해악을” 가져온다고 말한다(Machiavelli 2008, 26). 시의적절(時宜適切)한 선제적인 개입이 중요한 것이다.

결국 예측불가능성과 성공과 실패의 순환적인 운명이 표현하는 것은 바로 변모하는 상황 그 자체인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18장과 25장에서 변모하는 상황 특히 “대격변”(variazioni grandi)을 당시 이탈리아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기술하고 있다.¹¹⁾ “운명의 풍향과 변모하는 상황(venti della fortuna e le variazioni delle cose)”

10) 마키아벨리에게서 나타나는 포르투나와 시간 개념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오르(Orr 1972) 참조.

11) 이탈리아를 격변의 공간으로 밀어 넣고, 반도를 유럽 강대국들의 전장(戰場)으로 만든 것

은 매 순간 존재하는 역경의 내재성을 표현한다(Machiavelli 2008, 121). 상황 내재적인 역경의 가능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준비를 하거나 역경에 맞는 상황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다.¹²⁾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14장에서 군주에게 제일 중요한 것으로 군무의 연마를 들었다. 평화 시에도 나태하지 말고 군무에 대한 역사서를 공부하고 야전에서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역경에 처할 때를 대비”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운명이 변하더라도 그는 운명에 맞설 만반의 태세”가 되어 있는 것이다(Machiavelli 2008, 104). 이것이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상황에 맞는 행동의 변화이다. 이것을 마키아벨리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는지를 논구하는 18장에서 다루고 있다. 즉, 신의를 지키거나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과감히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운명과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상황이 변화무쌍하기에 자유자재로 자신의 행동을 바꿀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Machiavelli 2008, 121). 준비와 자유자재로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인간의 영역 즉 인간의 역량으로 귀결된다.

2. 포르투나와 역량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도자나 국가의 성공은 기회와 역량이 결합되었을 때 나타난다. 그런데 역량은 인간의 영역에 속하지만 기회는 그렇지 못하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포르투나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기회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면 인간 밖의 것은 관심을 끄고 인간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주장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운명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것은 아니다. 그는 『군주론』 25장에서 운명

은 1494년에 있는 프랑스 왕 샤를(Charles) 8세의 침공 때문이었다. 이 침공은 밀라노, 나폴리, 베네치아, 피렌체 그리고 교황국 간의 끊임없는 대립을 평화로 이끌었던 것은 1454년의 로디(Lodi) 평화조약 이후 40년 만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탈리아는 평온에 취해 미리 대비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키아벨리와 1494년의 의미에 대해서는 레이븐(Laven 1995) 참조.

12) 차악(次惡)을 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군주론 21장의 조언은 바로 이러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사물의 도리 상 하나의 위험을 피하려고 하면 으레 다른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다양한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고, 따라야 할 올바른 대안으로 가장 해악이 작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Machiavelli 2008, 151).“

이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닌 인간의 자유의지를 위해 우리 행동의 반은 “우리의 통제에 맡겨져 있다는 생각”을 표명하고 있다. 나아가 이것은 포르투나에 대비하는 인간의 능력과도 연관된다. 다시 말해 강이 범람하는 것을 제어할 수는 없다. 엄청난 폭우가 와서 강이 범람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다.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범람하는 강이 인간세계에 미치는 피해는 줄일 수 있다. 튼튼하고 높은 제방과 둑을 쌓는 것이다. 나태하여 방비를 하지 않으면 강은 언제나 범람하여 대지를 휩쓸고 갈 것이다. 하지만 튼튼한 방비는 강의 범람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다스리던 국가들을 잃게 된 우리 시대의 군주들은 운명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을 탓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시대에 그들은 사태가 변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날씨가 좋을 때 폭풍을 예상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공통된 약점입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어 역경에 처하면 그들은 방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도망갈 궁리만 했습니다(Machiavelli 2008, 161).

마키아벨리는 운명과 인간의 관계를 자세하게 논한 『군주론』 25장에서 운명과 인간의 관계를 일반론과 구체론의 두 차원에서 논한다.¹³⁾ 일반론은 포르투나를 험난한 강에 비유하고 그 강이 범람했을 때 제방과 둑이라는 예방조치가 없으면 그 피해는 엄청남을 이야기 한다. 아울러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시 이탈리아처럼 인간들이 역량으로 미리 방책을 마련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격변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론에 이어 마키아벨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행동양식과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군주 개인의 운명이 부침을 겪는 것은 그의 대처방식과 시대의 부합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서로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한다. 반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같이 성공하기도 한다. 이는 그 행동방식이 그 상황 혹은 시대에 맞는지에 달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동방식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시대를 잘 파악하는 능력만 기른다면 시대가 변하더라도 계속해서 성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경직

13)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제미(Najemy 1993, 201-207) 참조.

성에 있다. 첫째, 인간은 “타고난 기질”이 유연하게 행동하는 데 적당하지 않다. 둘째, 여기에 자신의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개인의 경직성은 강화된다. 결국 유연하지 못한 인간은 변화하는 상황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패를 맞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마키아벨리는 교황 율리우스(Julius) 2세의 예를 들고 있다. 그는 과감한 일처리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볼로냐 원정을 베네치아 인들과 스페인 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돌파하면서 성공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감한 행동양식이 실패를 맞보기에는 그의 삶이 짧았다. 신중한 행동방식이 요구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죽음으로써 그는 몰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설명 후에 결국 “운명은 가변적인데 인간은 유연성을 결여하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인간의 처신방법이 운명과 조화를 이루면 성공해서 행복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해서 불행하게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Machiavelli 2008, 167). 이 결론은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지 포르투나와 대결하는 인간이 결국은 승리를 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다. 성공도 실패도 잠정적이기 때문이다.

군주에게 요구되는 역량들 중 앞서 언급되었던 시간과 관련되는 덕목이 바로 지혜(prudenzia)이다. 『군주론』 3장에서 그는 고대 로마인들의 현명함과 당시 피렌체인들의 우유부단함을 비교하면서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역량과 현명함에서 비롯되는 이익을 취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피렌체인들과 로마인들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시간’에 대한 대응의 차이였다. 앞서 설명했듯이 피렌체 정치인들은 시간을 지체하면서 확실하지도 않은 이익을 바라보기만 했다면, 로마인들은 일의 진행에 대한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재난을 미리부터 예견”했고,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연시키는 것이기에 선공을 취하는 등 시간의 진행 속에서 사건의 발달 과정을 미리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Machiavelli 2008, 25-26). 일의 진행이라는 시간에 대한 파악능력으로서 이러한 현명함에 대한 언급은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등장한다.

인간이란 현명함이(prudenzia)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소모성 열병을 두고 말한 것처럼, 일견 매력있게 보이는 정책을, 그 속에 있는 독성을 깨닫지 못한 채 시행합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초기 단계에 독성을 간파하지 못하는 군주는 현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지 소수에게만 주어질 뿐입니다(Machiavelli 2008,

98).

이렇게 군주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양한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고, 따라야 할 올바른 대안으로 가장 해악이 작은 대안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능력들도 군주 개인의 힘으로는 미약하기에 포르투나 앞에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존재이다.

결국 마키아벨리는 25장의 마지막을 그 유명한 여성의 비유로 끝내고 있다. 운명은 여성이기에 과감히 그리고 거칠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물쭈물 계산만 하고 있지 말고 공격적으로 대담하게 대면해야 운명은 더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포르투나에 대한 불가지성에 의존한다. 포르투나는 어차피 모른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하지만 인간은 그 행동양식이 상황구속적이다. 개별 상황에 맞는 경직된 행동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계가 뚜렷한 인간의 행동양식은 한계를 모르는 포르투나 앞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 대결해 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포르투나에 비추어 볼 때 마키아벨리의 적극적 행동주의는 인간의 한계성에 기반 한 비장미(悲壯美)가 있는 것이다.

3. 포르투나와 군주

마키아벨리는 군주 개인에게 능력을 키우고 현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 현명함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을 앞서 인용했던 13장의 마지막과 24장의 첫 부분에서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그것은 “무력”이며 “훌륭한 법, 강력한 군대 그리고 모범적인 행동”이다. 1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키아벨리는 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신의 군대와 무력이 없는 “군주국은 위기 시에 자신을 방어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운명에 의존해야 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무력에 근거하지 않는 권력의 명성처럼 취약하고 불안정한 것은 없다”라는 격언을 명심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한다(Machiavelli 2008, 98). 현명함과 자신의 무력에 대한 강조는 24장에서 다시 한 번 등장한다. 현명해서 나라를 잃고 수모를 받는 군주는 “훌륭한 법, 강력한 군대 그리고 모범적인 행동을 통해 그 나라를 잘 정비하고 강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Machiavelli 2008, 159-160). 현명한 군주는 자신의 무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무력은 13장의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자국의 신민 또

는 시민, 아니면 자신의 부하들로 구성된 군대”를 의미한다. 여기에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킬 수 있는 훌륭한 법 그리고 군주의 모범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군주는 국가를 강하게 만들어 포르투나의 변덕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포르투나의 강조를 통해 군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포르투나는 군주 개인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강한 군대가 필요하고, 인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모이면 가능하지만 개인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군주론』 25장에서 포르투나에 대한 일반론과 구체론의 논조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일반론을 말할 때 마키아벨리는 “잘 조직된 역량”(ordinata virtù)을 강조하며 그것을 제방과 독으로 비유한다. 이탈리아는 “제방이나 독이 없는 들판”이지만, 독일,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는 그것이 갖추어진 나라였다. 결국 그들처럼 “적절한 역량에 의해서 제방을 쌓았더라면, 홍수가 그렇게 커다란 격변을 초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홍수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Machiavelli 2008, 163). 포르투나에 대한 제어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처럼 들린다. 반면 개인과 포르투나와의 관계를 논하는 구체론에서는 개인의 경직성과 완고함이 가변적인 운명을 이기는 데는 역부족임을 설파하고 있다.

결국 군주는 혼자서 능력으로는 가변적인 포르투나에 맞서기가 굉장히 취약하다. 따라서 그는 개인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과 동시에 자기 군대를 확충하고 인민의 지지를 통해 국내정치를 안정시키는 등의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개인의 역량 증진은 행동방식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주의와는 다른 현실주의적 인식을 가지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는 『군주론』 15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핵심은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 것이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다르다는 것이다. 군주는 세상에 선한 사람들만이 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그는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하는 것이다(Machiavelli 2008, 105-106). 이것은 선하게 사는 법과 선하지 않게 사는 법, 두 가지를 모두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는 말이다.

이 유연성은 비도덕주의적 행동양식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것은 도덕주의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혀 다른 귀결을 가져올 수 있음을 파악할 줄 아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도덕주의적 행위의 문제는 16장에서 18장에 잘 나타난다. 관후함과

인색함, 인자함과 잔인함,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과 어기는 것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전자들을 선택할 것이며,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하지만 유연성을 잃은 도덕주의의 문제는 현실의 적용을 도외시한다. 관후함은 그 덕을 실천하면 할수록 덕으로부터 멀어진다. 왜냐하면 관후함은 자원의 소비와 더불어 낭비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결국 관후해지면 질수록 자원이 고갈되어 나중에는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인자함과 잔인함도 비슷한 현실을 가져오게 한다. 피렌체의 정치인들이 피스토이아(Pistoia)의 반란을 과감하게 제압하지 못하고 인자하게 처리하려 하자, 피스토이아의 내분은 더 격화되었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인자함이 현실의 잔인함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군주 개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비도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도덕적 행위의 문제를 파악하는 현명함을 갖춤과 동시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양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홍수는 개인이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방과 둑을 쌓아야 하는데 그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인민들의 지지 그리고 강력한 자기 군대로 구성된다. 군주 개인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인식하에서 이러한 국가 권력의 토대구성이 가능하다.¹⁴⁾ 국가의 힘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사고는 『군주론』 10장에 잘 나타나 있다. 『군주론』을 통틀어 군주국의 국력문제를 제목에서부터 명시한 유일한 장이다.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국 보다는 독일의 자유도시를 예로 들고 있다. 왜냐하면 “인민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잘 방어된 도시”가 진정 강한 국가이기 때문이다(Machiavelli 2008, 75). 독일의 자유도시의 특징은 인민들이 충분한 식량과 식수 그리고 연료를 가지고 생활하며 강력한 성벽과 무기를 가지고 군사훈련을 중히

14)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7장에서 운 좋게 교황군의 수장과 공작의 지위에 오른 체자레 보르자의 능력을 칭송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국가구성의 토대로서 자국군의 확립과 인민의 지지였다. 체자레 보르자는 프랑스군을 원군으로, 로마의 콜론나(Colonna)와 오르시니(Orsini)가문의 사람들을 용병으로 사용했지만 모두 자신의 힘의 진정한 기반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시니갈리아(Sinigaglia)에서 음모를 일으켜 자기 군대를 확충한다. 아울러 로마냐(Romagna)지역에서는 귀족들에게 억압받던 인민들을 시민재판소 등을 통해 구원해 줌으로써 인민의 지지를 확충하게 된다. 이후 『군주론』의 여러 장들에서 마키아벨리가 강조하듯 자기 군대와 인민의 지지, 이 두 가지가 군주를 강력히 지지해 주는 권력의 토대인 것이다.

여기고 있고, 여기에 인민들이 자유롭게 직업에 종사하며 그들의 생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인민이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그들로 구성된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국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 특이한 것은 군주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국력이 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군주국의 힘은 군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인 인민과 자기 군대에서 나오는 것이다. 강의 범람을 막을 제방은 군주가 아닌 자기 군대와 인민들인 것처럼 포르투나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군주 개인이 아닌 국가 구성원 집단의 힘인 것이다.

결국 포르투나는 인간의 세계에 작용하지만 인간의 영역 저 너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인간의 의지로 포르투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던 마키아벨리는 포르투나의 힘을 절감했다. 그것은 예측불가능성이자 성공과 실패의 주기적 발생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허무함이었다. 흑사병이라는 인류의 대위기 앞에서 보카치오(Boccaccio)는 『데카메론』(Decameron)에서 자연으로 도피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개인이 세상에 나서지 않으면 포르투나는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달랐다. 정치인으로서 그는 세계에 뛰어들어 포르투나에 맞서고자 하였다. 시간의 흐름 속에 지혜의 무기를 추천하기도 하였고, 인민의 지지와 자기 군대라는 제도적 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메디치가의 지배하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포르투나에 대응할 방법을 두 가지로 알려주었다. 하나는 개인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집단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이다. 개인적인 방법은 유연성을 키워 자유자재로 변하는 포르투나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안하다. 인간 행동양식의 비유연성과 경직성 때문이다. 그런데 군주제에서 군주는 인간 개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오만과 집착이다. 군주는 권력을 그에게 집중시키기 쉽고 그렇게 되면 주변에 아첨꾼이 늘어나게 된다.¹⁵⁾ 결국 자기 힘과 능력에 대한 과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군주의 개인 역량을 중심으로 군주의 정치를 보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군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해도 된다는 오만으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폭군정이 되는 것이다. 폭군정은 그 완악함과 폭력성으로 유연성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15) 아첨꾼의 제어와 올바른 조언 그리고 훌륭한 측근 신하를 두어야 하는 문제는 군주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군주론』 22, 23장 참조.

된다. 결국 몰락의 길을 가는 것이다.¹⁶⁾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의 초반부에서는 군주 개인의 역량이 중요함을 설파하고 있다. 그렇지만 점차 후반부로 가면서 역경과 예측불가능성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결국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포르투나에 관한 장을 할애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군주에게 올바른 조언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포르투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비유연성이라는 개인의 존재론적 한계 내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회피하고 주저하는 것 보다는 결연히 맞서야 포르투나가 행운인지 악운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댐과 둑이라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기 군대의 확충과 인민의 지지가 그것이다. 개인의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변의 힘을 빌려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III. 결론

본 논문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타난 포르투나관을 살펴보았다. 『군주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포르투나 대(對) 비르투 간의 대립관계 속에서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왔다면 본 논문은 전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포르투나에 초점을 맞출 때 『군주론』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드러나듯 역량에 초점을 맞추면 포르투나는 강한 남성 즉 군주의 힘에 굴복하는 나약한 여성으로 나타난다. 『군주론』의 주인공으로서 군주는 무소불위의 정복자이거나 폭군으로 상정된다. 하지만 포르투나에 초점을 맞춰보면 『군주론』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포르투나는 예측불가능성으로서 급변하는 세계를 상징한다. 그 속에 성공의 계기를 제공하는 호기(好機)와 더불어 실패를 맞보게 하는 역경(逆境)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포르투나는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삶을 형성한다. 군주가 그의 정치를 하는 공간은 포르투나가 존재

16)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의 마지막 장인 26장에서 이탈리아의 문제를 “지도자의 유약함”에서 찾는다. 그들은 “새로운 법과 제도”를 창안하는 것을 등한시 하였다. 결국 “유능한 사람에게는 추종자가 없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제일 잘 났다고”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Machiavelli 2008, 171).

하는 공간이다. 문제가 상존하는 공간인 것이다. 그런데 군주는 개인이다. 개인은 포르투나와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바로 행동양식의 비유연성 때문이다. 하지만 포르투나는 가변적이다. 고정불변의 행동양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지닌 개인은 가변적이고 예측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포르투나 앞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유연성을 군주가 지녀야 할 역량으로 조언한다. 상황에 맞게 도덕적으로 혹은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은 다르기에 개인의 완고함은 유연성을 얻기가 힘들다. 그런데 설사 유연하게 행동해서 성공을 계속 확보하게 되더라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성공의 지속은 개인을 오만방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사람을 유연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변적인 세상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군주 개인으로는 역부족인 것이다. 그렇기에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댐과 둑의 비유를 들고 있다. 그것은 제도적 노력이며, 국가 구성원들의 힘을 모아내는 것이다. 댐과 둑은 강이 불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나아가 큰 홍수가 나면 그것을 막을 수도 없다. 하지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포르투나의 발생이 아니라 그 효과를 제어하는 것이다. 포르투나의 발생을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개인의 역량에 대한 오만이며 그 귀결은 제도에 대한 무시와 질서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포르투나에 이보다 더 좋은 먹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 군주가 역량보다는 포르투나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포르투나에 초점을 맞출 때, 군주는 겸손해지게 된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포르투나를 염두에 둘 때 비르투가 오히려 더 빛날 수 있다는 것이다. 포르투나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거기서 나오는 권력은 제어되지 않는 강권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지키고 보존하는 권력이 아니라, 파괴하는 폭력으로 타락할 수 있다. 포르투나를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만이 비르투는 부패되지 않고, 절제와 공존의 미덕을 소유하여 더 비르투다워 질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비르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인간의 능력이 포르투나를 제압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능력에 대한 자만은 오만을 부르고, 오만은 유아독존의 폐해를 낳게 한다. 결국 그 귀결은 당시 이탈리아의 군주들처럼 국가를 몰락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에게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해준다. 전자는 행위의 당위성을, 후자는 행위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예컨대 특정 개인이 ‘지도자가 되어야만 한다.’와 ‘지도자가 될 수 있

다.’라는 두 가지 원칙에서 행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당위에 구속되면 과욕과 극단의 정치에 흐를 수 있다. 반면 결과의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 좀 더 객관적이고 숙고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전자는 권력의 장악과 그 사용에, 후자는 문제해결에 전념하게 한다. 권력의 소유와 행사에 중심이 놓이면 포르투나를 제어하고 심지어는 행운도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반면 행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포르투나 그 자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문제 혹은 효과에 대응하려 한다. 전자는 오만방자의, 후자는 절제의 정치를 낳게 한다. 이러한 비교는 현재 제약적 대통령제의 폐해 속에서 대통령 개인의 권력남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군주론』은 어떻게 하면 유능한 지도자를 낳을 지에 관한 책이다. 포르투나는 예측불가능성과 순환론적 운명을 보여주기에 그 앞에선 지도자는 자신의 능력과 권력의 한계 속에서 겸손해져야 한다. 겸손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포르투나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지도자의 겸손과 절제는 국가에 상존하고 잠재해 있는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유연성을 연마하고, 제도적으로는 자기 군대의 확충이나 인민의 지지 같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포르투나를 제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것이다. 지도자 혼자만이 그 주변 몇몇 사람들과 정치를 해서 포르투나를 상대할 수는 없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심으로 그들의 도움과 힘을 요청할 때 포르투나는 제어가 가능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르투나를 중심으로 『군주론』을 다시 읽는 것이다.¹⁷⁾

투고일: 2017년 1월 11일

심사일: 2017년 1월 23일

게재확정일: 2017년 2월 22일

17) 주지하다시피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저작들인 『로마사 논고』, 『피렌체사』 등에서도 포르투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마키아벨리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군주론』에 나타난 포르투나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따라서 마키아벨리의 포르투나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은 미진할 수밖에 없다. 그의 여타 저서들을 포괄하는 포르투나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은 차후의 연구 주제로 남겨놓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갈상돈. 2011. 「정치리더십과 마키아벨리의 네체시타(necessità)」, 『정치사상연구』, 제17집 1호. 105-132.
- 김경희. 2014. 「마키아벨리의 비르투 재생전략 연구: 우모리와 행동양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4호. 117-134.
- 박상섭. 1998. 「Virtù의 개념을 중심으로 본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 연구」, 『국제문제연구』, 제22호.
- 박의경. 2016. 「마키아벨리에 나타난 비르투의 정치와 포르투나의 가능성: 〈만드라골라〉와 〈클리피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6권, 2호. 549-576.
- Balaban, Oded. 1990. "The Human Origins of Fortuna in Machiavelli's Thought",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Vol. 11, No. 1. 21-36.
- Boccaccio, Giovanni. 박상진 역. 2012. 『데카메론』 1, 2, 3. 서울: 민음사
- Cassirer, Ernst. 1946. *The Myth of the Stat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Cioffari, Vincenzo. 1947. "The Function of Fortune in Dante, Boccaccio, Machiavelli", *Italica*, Vol. 24, No. 1. 1-13.
- Flanagan, Thomas. 1972. "The Concept of Fortuna in Machiavelli", ed. Anthony Parel, *The Political Calculus, Essays on Machiavelli's Philosophy*. Toronto and Buffal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27-156.
- Geerken, John H. 1970. "Homer's Image of the Hero in Machiavelli: A Comparison of Areté and Virtù." *Italian Quarterly* 14. 45-90.
- Gilbert, Felix. 1951. "On Machiavelli's Idea of Virtù." *Renaissance News* 4. 53-55.
- Hannaford, I. 1972. "Machiavelli's Concept of Virtù in the Prince and the Discourses Reconsidered." *Political Studies* 20. 185-189
- Kahn, Victoria 1986. "Virtù and the Example of Agathocles in Machiavelli's Prince." *Representation* 13: 63-83.
- Laven, David. 1995. "Machiavelli, italianità and the French invasion of 1494." In David Abulafia, eds. *The French Descent into Renaissance Italy 1494-95: Antecedents and Effects*. Aldershot, Hampshire: Variorum. 355-369.
- Machiavelli, Niccolò. 1965a. "Tercets on Fortune." trans. Allan Gilbert. *Machiavelli. The Chief Works and Others*. vol. 2.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745-749.

- _____. 1965b. "The Golden Ass." trans. Allan Gilbert. *Machiavelli. The Chief Works and Others*. vol. 2.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750-772.
- _____. 1988. *Florentine Histories*. trans. L.F. Banfield and H.C. Mansfield, J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3. *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i Tito Livio*. 강정인·안선재 역. 『로마사 논고』. 서울: 한길사.
- _____. 2008. *Il Principe*. 강정인·김경희 역. 『군주론』. 서울: 까치글방.
- Meinecke, Friedrich. 이광주 역. 1990. 『국가권력의 이념사』, 서울: 민음사.
- Münkler, Herfried. 1994. "Republikanische Tugend und Politische Energie. Die Idee der virtù im politischen Denken Machiavellis." In *Politikwissenschaft als kritische Theorie; Festschrift für Kurt Lenk*, Michael Th. Greven (hrsg), Baden-Baden: Nomos Verlag. 97-107.
- _____. 2016. "Gewalthandeln, Rückzug ins Private oder Kalkülrationalität? Über den Umgang mit Kontingenz im Denken der Frühen Neuzeit." hrg. Hartmut Böhme, Werner Röcke, Ulrike C. A. Stephan, *Contingentia: Transformationen des Zufalls*. Berlin: De Gruyter. 305-326
- Najemy, John. M. 1993. *Between Friends. Discourses of Power and Desire in the Machiavelli-Vettori Letters of 1513-151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ederman, Cary J. 1999. "Amazing Grace: Fortune, God and Free Will in Machiavelli's Thought."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60, NO. 4. 617-638.
- _____. 2000. "Machiavelli and Moral Character: Principality, Republic and The Psychology of Virtù."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21. 349-364.
- Orr, Robert. 1972. "The Time Motif in Machiavelli." ed. Martin Fleisher, *Machiavelli and the Nature of Political Thought*. New York: Atheneum. 185-208.
- Pitkin, Hanna Fenichel. 1984. *Fortune Is a Woman. Gender and Politics in the Thought of Niccolo Machiavelli*.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ocock, J.G.A. 1975. *The Machiavellian Mo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 Price, Russell. 1973. "The Senses of Virtù in Machiavelli." *European Studies Review* 3. 315-345.
- Reichert, Klaus. 1985. *Fortuna oder die Beständigkeit des Wechsels*. Frankfurt am Main: Suhrkamp.
- Strauss, Leo. 1969. *Thoughts on Machiavelli*.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Tarlton, Charles D. 1968. "The Symbolism of Redemption and the Exorcism of Fortune in Machiavelli's Prince." *Review of Politics* 30. 332-348.
- _____. 1999. "Fortuna and the Landscape of Action in Machiavelli's Prince." *New Literary History* Vol. 30, No. 4. 737-755.
- Whitfield, J. H. 1943. "The Anatomy of Virtù." *The Modern Language Review* 38. 222-225.
- Wood, Neal. 1967. "Machiavelli's Concept of Virtù Reconsidered." *Political Studies* 15. 159-172.

ABSTRACT

A Study on Machiavellian Fortuna: Focusing on *The Prince*

Kyung Hee Kim |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concept of fortuna in Machiavelli's *The Prince*. Fortuna can be translated into destiny, good luck and so on. Machiavelli lived in the Renaissance period, in which the Middle Ages of God's rule was surpassed and the free will of human beings seemed to pass through to what extent. It was a transitional period. In such a period Machiavelli wrote *The Prince* for the national leader. Machiavelli suggests no leader with overconfidence in his ability and power to be an arrogant tyrant, but a leader who is humble and can look around himself and surroundings. It is not the concept of virtù, but the concept of Fortuna to help us understand the real intention and meaning of *The Prince*.

Keywords: Machiavelli, The Prince, Fortuna, Virtù, prince